

옛날에 세 동무가 있어. 훈 사름은 증승(짐승) 말을 잘 하고, [<조사자 : 줄국?> 옆에서 듣던 부인이 중국이 아니고 짐승이라 하였다.] 훈 사람은 사름을 관상을 잘 하여, 또 훈 사름은 음식 맛을 잘 알아. 흐른(하루는) 이제 먼 길을 걷는다. 저 연못디(연못이 있는데) 영 보니까(이렇게 보니까) 까마귀가 앉아 '깡굴락 깡굴락' 흐거든. 그러니까 그 증승말 잘 번역하는 사름이,

“하 여기 주검이 있다.”[조사자 : 주검이?]

“아 저, 까마귀가 저리 허니까, 우리 저디 강(가서) 봐서, 소나 말이나 죽었거든, 우리 배도 고프고 그거 잡아 가지고 멩게낭(청미래덩굴) 불에 구어서 먹자.”

그래서 가 보니까 처녀가 헤뜩 자빠전 죽었거든. 아 그러니깐 끔짝 놀래가지고 그 세 동무는 뒤터레(뒤으로) 싹 물러살 포름엔(그 때에) 어떤 무지락<sup>1)</sup> 총각놈이 오란 탁 흐게 잡으면서,

“너희덜 이 색실 죽이지 아이 했느냐?”

아 그렇게 하니까

“하이고 우린 안 죽였다.”

“왜 안 죽였느냐?”

그래서 그 사름이 이젠 지서에 <sup>2)</sup>보골 해 부렸거든. 고발을 해 부니까, 지서에서는 그 세 동무를 심어단 탁 가두와 놓고, 매일 때리면서 막 문초를 받는거라.

“너 이놈의 새끼덜, 꼭 오닐은(오늘은) 꼭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을 해라.”

경(그렇게) 문초를 하루 훈 번씩을 매일 허는다. 흐루는 이제 그 재판장이, 만날 허당 봐도(해 봐도) 그 말이라.

“하이고 전 아니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아니했습니다.”

그리 항상 흐거든. 재판장이 재판을 허여 볼 수가 없어.

“하 그러면 이제 요 일을 어떻 허느냐(어떻게 하느냐)?”

이제 집에는 재판장 각시가 밥상을 해가지고 떡 들러다 노면서,

“그자 이젠 자십서”

허여도,

“하 이제 내가 이 재판을 허지 못허민 내가 밥통을 놓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내 밥을 먹을 수가 웃다.”

그러니까 이제 각시가 흐는 말이

“어떠한 일로 그걸 안 먹읍니까?”

1) 험상궂은.

2) 관가를 요즈음 경찰관서로 바꾸어 말하는 것임.

“하 요런 일을 해결 못하면 내가 헐 수가 었다.”

겨니까(그러니까) 이제 각시가 하는 말이

“걱정말고 자십시오. 걱정말고 자시명 말만 들읍서.”

“면(무슨) 말이나?”

“그렇게 짐승말을 번역을 잘 한다 하니, 제비새 새끼를 하나 주머니에 딱 집어 넣고 거기 강 그 사름덜을 문초를 햄시면은(하고 있으면) 그 놈의 제비새 새끼가 물론 가서 짹짹 흘 겁니다. 짹짹 혀영 요것이 알건 이 사름이 죄인이 아니로 압서.”

거, 굴안 보니(말을 해 보니) 맞거든. 그래서 그 재판장은 각시말을 들어 가지고 그 제비새 새끼를 주머니에 톱 놓고 큰 옷 입으니까, 주머니에 싹 놓고 간 방에 앉아 가지고 이 놈덜을 죄다 잡아들여라 허연, 잡아들연. 오라서<sup>3)</sup>

“이제 너희덜이 오늘 꼭 바른 말을 아이허면 너희덜이 꼭 죽을 터이니 그줄(그런 줄) 알아라. 너희덜 꼭 바른 말 허여라.”

“아이고, 우리덜은 죽어도 이 말입니다. 죽어도 이 말입니다.”

새는 창문에다가 짹짹<sup>4)</sup> 하면서 머 왔다갔다 왔다갔다 막 파닥닥 파닥닥 허여.

“하 이제 너는 짐승말을 번역을 잘 한다 하니 너 저 새는 어떻게 해서 저리 허느냐.”

“나에게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놉줍서. 놉줍서. 놉줍서. 햄습니다.”

“하 너희덜 이젠 많이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젠 그 죄인들을 놓게 됐는디, 이젠 그 각시보고

“이 사름덜 많이 고생했으니 오늘랑 잘 대우를 해서, 잘 출령 멕이고, 석방을 시켜라.”

그래서 이젠 그 음식을 잘 출려 놓고, 밥상을 톱 허게 들러가니까, 그 재판장은 7만히 그 굴목에 숨어두서 봤거든.

‘요것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면(무슨) 얘기를 허는고?’

히어서 이젠 가만히 숨어두서 보니깐 세 동무가 말 하는디,

“나는 짐승말 번역을 잘 해서 이 일을 해결을 되었는데 너, 사름관상 잘 허는 친구는 어떻더냐?”

“거 재판장, 재판은 잘 허더라마는 그거 중놈의 새끼라라.”

또로 이제, 음식맛을 잘 아는 놈은,

“너는 이제 음식맛을 잘 안다 허니 이건 탁주, 이제 집에서 만들어 논 술이거든. 너 이 술은 어떤 술이나?”

아 구룩구룩 혀게<sup>5)</sup> 먹으면서 입을 축축 다시면서 하는 말이

---

3) 죄인들이 오니까.

4) 제비소리.

5) 술 들이키는 소리를 본뜬 말.

“아 요 술은 맛은 좋다마는, 팡토밧디 대죽술이다.”

팡토밧이엔 훈 건, 사름 죽어서 묻었다가 일련(파헤쳐서) 나가분 디. 천리터.(이장한 장소) 천리터에 춤 익여가지고(밭을 만들어서) 대죽을 갈았다가 멘든 대죽술(수수술)이라 말이어.

“하 이거 음식맛은 좋다마는 팡토밧디 대죽술이라.”

아 경허여.(그렇게 말해) 경허니 그 재판장은 가만히 이젠 굴묵에 곱아두서 보니까, 하 자기가 중놈의 새끼 줄 몰랐주게. 게니까 이젠 그 날은 이제 어명신디(어머니에게) 갔어.<sup>6)</sup>

“어머님 꼭 바른 말을 험서. 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낳게 됐수가?”

아 그것이 질문을 험다 말이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즈식이 귀해가지고 즈식이 없으니까 높은 산에 가서 아주 시님(스님) 빌어서,

“춤 생불 환승을 시겨줍서.”

허여서, 기돌 드려서 너를 이제 낳다. 경허니까 이제 중놈의 새끼다 요거고, 이제 각시보고

“너 이제 술은 어떤 술이냐?”

허니까, 그것이 이제 천리터를 치와가지고 다른 곡식 흙 보단도 대죽을 갈았다가 그 대죽을 허여 술을 헌 겁니다.”

그러니 세 동무가 다 잘 아는 사름이라. 겨니(그러니) 이제 돈을 얼마 주면서

“아 너희덜 다시 이런 일을 알질 말라.<sup>7)</sup> 알다가(알렸다가) 한 사람 이제 멧(멧) 사름을 다 죽일테니 다시 알지 말라.”

고 허면서 돈을 멧 백만원을 주더라 허여. [조사자 : 그냥 돈 주영 부자로 산거파?] 경 훈 거주, 옛날에사 무신, 경 헤 질 때쥬.[조사자 : 이젠 언제 들은 겁니까?] 언제? 오랜 거쥬. 어린 때, 아주 어린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쥬.[다른여인 : 지금 사름덜은 좀 히영 이거 모르매.]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여·66.)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학술조사보고서-안덕면 덕수리 제7집』, 1982, pp.87-90.

6) 재판장이.

7) 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